

노마스크에 복적복적...수영장은 '코로나 무법지대'

수백명 이용 남부대수영장 거리두기 없고 다닥다닥 붙어 이야기도 물놀이시설 마스크 의무화와 대조적...물 밖 철저한 개인방역 시급

27일 오전 6시 30분께 찾은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주차장에는 수영장을 찾은 강습생들 차로 가득했다. 차를 주차할 곳을 찾아 여러 번 돌아다녀야 할 정도였다. 수영장을 경유하는 788번 버스가 "수영장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 대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수영장 내부도 복적였다. 1층 면적만 2250㎡로, 14개 레인에 100명이 넘는 강습생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물 속에서 착용할 수 있는 '아쿠아 마스크'를 쓴 사람은 단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현행 방역지침상 실내수영장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찾은 강습생, 강사 모두 마스크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영장 한 칸에는 강습생 1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음시간 강습생 100여명이 쏟아져 우르르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한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영장 앞에서 만난 20대 회원은 "수영할 때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속출하고 매일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허술한 방역의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 내부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여 적극적인 지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수영장 이용자들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광주지역 유일한 국제규격 수영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의 경우 방학을 맞아 연일 수백명의 이용객들로 복적대고 있지만 시설측이 이용객들 불만을 의식,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수영장 내부 물 속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 방역당국 설명이다. 수영장 내부와 시설에서도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관계자는 "방역수칙 관련해 10분 간격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출입구나 탈의실에 2-3의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27일 찾은 남부대수영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듯했다.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이용객들도 없었 수영장 물 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이용객도 보이지 않았다. 회원 간 거리두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물놀이시설인

수영장 안에서 마스크를 보관하기도 어렵고, 물에 젖은 마스크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 사실상 수영장 내 마스크 착용은 형식적인 조치로 지켜지기 어렵지 않겠냐는 게 다른 수영장 관계자의 고백이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을 했던 물놀이시설이 내장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물놀이장 내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최근 5일(22-26일) 간 165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넘기는 급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7일까지 광주지역 1월 확진자는 5087명. 지난해 12월(1804명) 확진자의 2.8배에 이른다. 물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고려하면 물 밖 방역수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인 최진수 전남대의대 명예교수는 "사우나 이용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많았던 만큼 수영장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된다"면서 "물 속에서 마스크를 쓸 수 없지만 수영장 이용시에는 타인과의 접촉이, 대화를 차단하고 물 밖에서는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17일째인 27일 오전, 소방 구조대원들이 잔해물이 쏟아진 28층과 29층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화정 아이파크 28층서 세번째 실종자 발견

203동 붕괴 위험 지역에 현대산업개발 "위험 없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다. 세번째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나머지 실종자 수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7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붕괴 건물 28층 2호 세대를 내시경으

로 수색하던 중 매몰된 작업자의 손을 발견했다.

구조당국은 "오늘 발견된 매몰자는 31층에서 작업을 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서 발견된 매몰자의 경우 28-29층에서 소방설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 잔해물 더미와 추가 붕괴 위험성 등으로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 당국은 또 27일 새벽 1시 30분께 인근 콘크리트에 묻어있는 현층을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로 발견한 매몰자에 대한 유전자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애초 실종자 6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붕괴된 201동 외에 203동 피트(PIT·설비공간) 층 천장 슬래브가 침하되면서 붕괴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붕괴 위험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민권익위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침에 광주환경운동연합 "물 부족·수질 악화 등 초래"반발

광주시에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광주일보 2021년 9월 6일 6면) 방침과 관련,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입장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원회는 각화정수장 폐쇄로 제4수원지를 식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수질악화 등을 우려해 보호구역 해제 전 수질 관

리·보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각화정수장 폐쇄에 따른 물 이용이 중단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즉각적인 보호구역 해제 절차는 향후 물 부족 대비, 비상 상수원 활용 가능성마저 포기하는 것"이라며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순간, 수질 관리에서 벗어나 수질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광주시, 환경부가 영산강 유역 보전, 물 자립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변론 아닌 잇단 일탈로 법정 서는 변호사들

사기·추행 등 징역형 선고 내부 자정 목소리 높아져

현직 변호사들이 일탈행위로 법정 서는 일이 잇따르면서 견제시스템 강화와 내부 자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500만원과 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A 변호사는 장례식장 경매 문제와 관련,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서 경매절차 진행을 연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현직 변호사들이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일이 부쩍 잦아진 상황이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6월과 8월 자신의 사무실

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명에게 법률 상담을 하면서 범행 재연을 가장해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변호사도 최근 공금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C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C 변호사는 광주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3억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이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도 보석 정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몰래 변론'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 정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을 27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기초반, 중급반]</h2>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p>● 월수익 750만</p> <p>● 년수익 9000만</p> <p>●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p>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